현불 논단

‘화합과 혁신위원회’에 바란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계종서 출범할 ‘화합 · 혁신위’
한국불교 전체 미래상 디자인

민주 · 자주화, 불교계 앞선 과제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찾아야
화합 · 혁신 키워드서 해답 존재해

‘화합 · 혁신’ 부처님이 걸어온 길
행복 실현위한 공동체 구성 목표

한국불교의 그랜드 디자인(Grand Design)을 도안할 ‘화합과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 그 위원회는 조계종에서 출범시키지만, 그랜드 디자인은 한국불교 전체의 미래를 그린다.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출 · 재가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가 올 3월부터 수십 차례 회의와 워크숍을 하면서 한국불교의 방향과 목표, 전략과제를 사전에 준비하였다. 필자도 일원으로 고민을 같이 해왔는데, 현재의 시대 상황에 맞는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 힘든 과제였다.

어떤 사회든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체계가 존재한다.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한다. 한국사회의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와 ‘자주화’가 우리사회를 관통한 패러다임이었다. 패러다임은 당대 한국불교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화와 자주화 패러다임은 그대로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군사정권의 독재가 총무원장의 독재와, 미국에 대한 종속이 불교의 정권에 대한 예속과 결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총무원장의 독재를 종식시키는 것이 한국불교의 민주화로, 정권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한국불교의 자주화로 분출되었다. 이와 같이 민주화와 자주화는 그 시기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이자 한국불교의 시대적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조계종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패러다임은 조계종을 넘어 한국불교를 관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패러다임은 세속 사회에서는 절대적 이념이 될 수 있지만, 출세간의 불교교단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민주화와 자주화라는 세속의 이념이 불교교단에서 절대시되면서 초래된 세속화 현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두 이념 중에서도 민주화는 정치 과정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인데, 조계종에서는 그 기능과 권한을 중앙종회에 부여하였다. 과거에 무소불위였던 총무원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정치기구인 중앙종회의 영향력이 종단 전반에 미치면서 승가의 곳곳에도 정치가 스며들었다. 종단제도의 세속화가 승가 운영의 세속화를 초래한 것이다.

지금은 1994년 개혁불사의 패러다임이 가진 ‘세속적’이라는 한계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그것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야 하는 ‘화합과 혁신위원회’의 시대적 과제다.

위원회의 명칭에서 ‘화합’은 1994년 개혁불사의 정신을 계승해온 종단이 화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혁신’은 그 종단이 새로이 혁신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화합하여 혁신함이 현재의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제 화합하여 혁신하는 길만이 조계종은 물론 한국불교가 살 길이다. 그 길은 부처님이 걸은 전법의 길과 다르지 않다. 부처님은 화합된 승가로서 교단과 사회를 혁신하였다.

이에 한국불교는 승가공동체와 사회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 공유와 보살핌으로 화합하는 불교공동체를 만들고, 타자 중심의 보살행으로 융합하는 세계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궁극은 ‘행복 실현’이다. 모든 생명이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게 사는 세상, 이것이 곧 붓다의 공동체이다. 일체 중생이 갈등하지 않고 평화롭게 공생하는 세상, 그것이 또한 불교의 공동체이다.

앞으로 ‘화합과 혁신위원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모든 생명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을 그려내야만 한다.

社 說

원력, 한국불교 바꾸는 힘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지난 4월 “하루 100원, 백만 명 원력이 불교 바꾼다”는 취지로 시작한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현대판 장자의 50억 원이라는 거액 기부에 이어 전국 각지에 배포한 발우 모양의 저금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설매 · 연취 보살의 50억 원 기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8억5000만 원의 기금이 모연됐으며, 앞으로 6억5000만원의 약정금도 남아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선포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같은 사부대중의 원력은 주목할 만하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초기 조계종 안팎에서는 사업의 성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건립,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입상, 계룡대 3군본부 영외법당 건립, 불교전문요양병원 건립 등 각 사업별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세간의 우려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레 사라졌다. 전국 사찰을 비롯해 수많은 불자들이 함께 뜻을 모아 각자의 원력을 크고 작은 기금으로 전했다. 고사리손으로 동전을 모은 새싹불자들의 원력,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엄마의 원력, 더 나은 불교로 거듭나길 바라는 불자의 원력까지. 개개인의 풀뿌리 원력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라는 창구로 모여들었다.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은 ‘보시하는 자는 공덕을 얻고, 자비심을 지닌 자는 적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되고, 탐욕을 떠난 자는 고뇌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더 나은 한국불교를 위해 사부대중 모두 육바라밀의 첫째인 보시를 실천하면서 원력을 보태자.

불교, ‘탈종교’ 대책 세워라

한국갤럽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종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밝혔다. 2014년과 비교하면 탈종교와 탈제도종교화가 확연하다.

물론 불교의 경우 가톨릭에 비해 조사결과는 양호하다. 2014년과 비교하면 좋아하는 종교로 불교를 답한 이는 1% 이내 차이에 그쳐, 5년 전과 거의 변함없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교계 학자들은 계층별 니즈 파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이가 어릴수록 나타나는 탈종교화와 탈제도종교화에 대해 추상적인 접근만으로는 미래가 어둡다는 것이다. 휴식 프로그램을 비롯해 상담과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세대별, 계층별 접근법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불교계는 개신교계에 비해 전법 포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재정 지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법 포교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니즈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은 암담하다. 불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불교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는 불교사회연구소의 경우 최근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 포교연구실 등 다른 연구기관도 마찬가지다.

이번 한국갤럽의 조사를 계기로 불교계 기관들의 불자와 전법 대상에 대한 니즈 파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조사에서는 탈종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탈제도종교화에 대한 부분도 다뤄져야 할 것이다.

불교의 생명은 전법과 포교에 있다. 부처님은 대기설법을 통해 다양한 이들의 니즈에 맞는 가르침을 남겼다. 불제자들의 새로운 과제는 불법을 접하는 이들의 니즈를 파악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음산책

타인에게 행복주기

황수경 동국대 겸임교수

문화공간 숨도에서 지원하는 대학생 행복프로젝트가 있다. 명칭은 다나 프로젝트인데, 다나는 보시를 뜻하는 ‘dana’이기도 하고, ‘모두가 다 나’라는 자타불이의 의미가 있다.

취지는 대학생들이 타인의 행복을 생각해보고, 남을 위해서 실천해보는 보시의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강의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5~7명 정도 그룹으로 나누어 각 팀당 동일한 과제를 준다. 과제 내용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 팀당 지원금은 10만원이고, 계획과 실천에는 약 3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이번 학기에 동국대 학생들 중 팀명을 ‘카르페 디엠(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으로 지은 팀은 학생 각자가 자기 마음에 다가온 좋은 구절이나 시 등을 넣어 소책자를 만들었다. 마음이 담긴 글을 넣어 법공양 책자를 만든 것이다. 그 책자와 함께 핫 팩을 하나씩 나누어주는 계획을 세웠다. 200명이 넘는 대상자들 중에는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도 있었다.

한 여학생은 고민하다 부모님과 고3인 동생에게 전달했다. 평소 가족 간에 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다. 동생은 현재 재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재수의 경험이 있는 언니의 진심어린 글과 핫팩은 동생을 감동시켰다. 어머니는 항상 잘 하라고 다그치는 말씀 위주였는데, 뜻밖에도 답으로 장문의 카톡을 보냈다. “항상 엄마가 응원할게”라는 말을 평생 처음 들었다고 한다. 아버지 역시 처음으로 다정한 카톡을 보내왔다. “혼자가 힘들면 아빠를 찾고, 가족을 찾으렴.” 학생은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바라던 가족과의 친밀한 대화가 드디어 이루어지자 마음이 울컥했다고 한다.

다른 남학생도 별 기대없이 어머니께 드렸는데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을 보니 자신도 행복해졌다. 그 외 핫 팩과 마음글은 경비아저씨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할인받은 핫팩은 하나에 500원도 안되는 가격이었다. 5000원을 주어도 이런 반갑고 환한 얼굴은 못 보았을 것이라고 한다. 학생들은 500원으로 이렇게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미처 몰랐다고 한다. 거기엔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심이 담겼기 때문이다.

팀명 ‘보리수 아래 주인공’은 독거노인들에게 김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봉사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 사찰에 가서, 집에서도 안 하는 김장을 직접 해보았다. 힘들기도 했지만,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할 생각에 미소가 저절로 나왔다. 취업도 어려워 힘들다고 생각하던 학생들은, 정말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다.

일체유심조, 무엇보다 마음이 기본임을 다시 확인한다. 학생들의 마음책자에는 “세상 모든 사람을 돕기는 어렵지만 내게 인연 주어진 한사람을 도울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서 좋은 마음을 보내보세요”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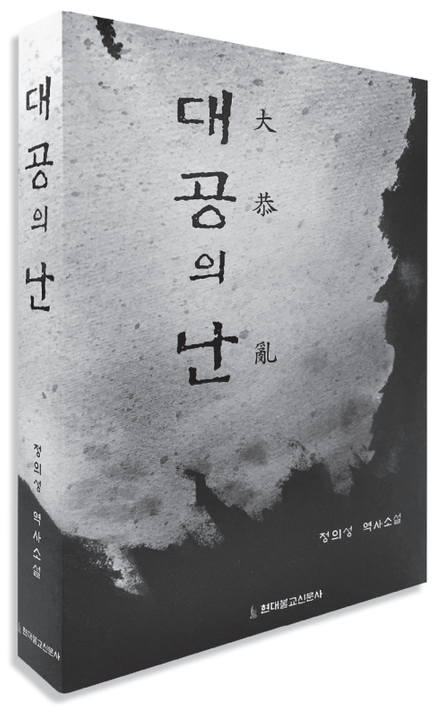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마침내 온 우주와 함께 하는 한마음인 것이다”라고 하신 법어가 떠오른다. 추운 날씨에도 남을 생각하는 따스한 자비심이 세상 모든 존재들의 아픔을 녹여주고 마음을 환히 밝혀주기를 기원한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